

# 『榮花物語』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색채와 염색을 중심으로-

문 광 희

동의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Clothing and Textiles  
Recorded in 『Eigamonokatory(榮花物語)』  
-Focus on Colors and Dyeing-

Kwang-Hee, Moon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Dong-Eui University

##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Clothing and Textiles recorded in 『Eigamonokatory(榮花物語)』, focus on Color and Dyeing. 『Eigamonokatory』 is a novel described the life style of Royal Court from 883 till 1107. The discoveries of this paper were as follows.

1. The materials of colors and dyeing which are described in this book reflect the features of the age well. We can assume that the point of its chic might rest on colors and dyeing than design or pattern.
2. Since they enjoyed wearing lots of clothes which are in the same design but in different colors with the underwear. When color coordinate was fashioned, we call them "Kasanenoirme(襲色目)". This type of dressing was in vogue in the age of Heian(平安), when there were several devices of showing chic in dressing.
3. The color of clothes at that time, might represent one's official position, the black the highest class, following the purple, the red, and the blue or green. The black color was made from the purple or blue. The Japanese Emperor would wear reddish yellow or blue clothes according to the nature of his office work.
4. Some of Japanese fashion might be influenced by Korean styles in the respects of coordinating colors and adjusting Buddhist fashion, etc. It is required that the further studies of comparing Korean fashion styles with Japanese ones should be deepened.

Key Word : 日本平安服飾, 襲色目, 纒纈, 織色, 位階色, 僧・喪服色,

## I. 머리말

『榮花物語(에이가모노가따리)』는 A.D. 1086년부터 약 20년 동안 쓰여진 일본의 역사소설로서, 宇多(우다, 887-897), 西是西胡(다이고, 897-930)천황 때부터 堀河(호리카와, 1086-1107)천황 때까지 15대의 천황, 200년간의 궁정 귀족사회의 다채로운 생활사가 묘사되어 있다.

이 책은 일반적으로 藤原道長(후지와라 미치나가)의 아내인 倫子(린시)의 시종을 들었던 赤染衛門(아카조메 에몬)의 作이라고 전해지며, 平安시대(794-1185)가 배경이 되는 궁중생활의 묘사 속에는 화려하게 발달되어 있었던 당시의 복식문화가 구체적이면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일본의 고대 문학작품을 통한 복식사의 연구는 일본에서는 이미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문학작품을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찍이 한국복식의 영향 아래서 일본복식이 형성되었고, 역사성이 있는 문학작품은 복식사적 측면에서 사실성과 순수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복식자료가 풍부한 경우, 그것에 대한 연구는 한국복식사의 정립에 도움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는 高麗前期의 복식이 화려하고 찬란했음에도 불구하고 史料의 부족으로 그 시대의 복식을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同時代에 쓰여진 일본의 문학작품들은 고려전기의 복식 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榮花物語』를 대상으로 한 복식자료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sup>1)</sup>, 한국에서 연구된 바는 없

다. 본 연구자는 『榮花物語』의 연구에 앞서 시대가 조금 앞서 서술된 『枕草子』와 『源氏物語』의 복식자료에 대해 이미 연구 발표하였고, 『榮花物語』에 대해서도 의복과 장신구의 측면에서 탐고하였으며, 본 연구는 그에 후속되는 논문이다<sup>2)</sup>. 『榮花物語』의 복식자료 총 154종 중 본 연구에서는 염색과 색채 60종에 대하여 연구 분석한다. 연구에 사용된 『榮花物語』 책은 일본 岩波書店(昭和 40)에서 발간된 것을 한국에서 영인본으로 재출간한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榮花物語』를 통한 당시의 일본복식의 특징 究明에 한정하며, 차후 究明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한일간의 비교 연구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 II. 『榮花物語』 당시의 美의식

『榮花物語』가 쓰여진 平安시대는 杭武帝가 도읍을 平安京으로 옮긴(794) 이후 平家が 멸망하기(1185)까지를 말하며, 그 중에서도 遣唐使가 폐지되는 때(894) 이후를 일반적으로 藤原시대라 한다. 藤原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藤原氏 一門이 정치적으로 권력을 장악하여 새로운 궁정·귀족사회를 실현시켰기 때문이며<sup>3)</sup>, 궁정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은 풍부한 재력과 한가한 여유로서 유희적이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였으므로, 복식 또한 화려하고 격조있는 美를 창출하였다.

특히 이 시대 여성의 정장은 속칭 十二單에(十二單)로 명명되는 唐衣裳이었다. 맨 속에 單을 입고 그 위에 袷, 打衣, 表着, 唐衣의 순으로 몇 겹을 겹쳐입는 이 옷은 후일 일본의 전통에복으로서

1) 榮花物語と裝飾經, 日本的美術7, 1989, No. 278.

中山昌, 文學にみる衣生活 シリーズ, 榮花物語の服飾, 衣生活107, 1976.

2) 문광회, 枕草子の 복식자료 연구, 복식 28호, 1996.

문광회, 源氏物語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권1호, 1997.

문광회, 榮花物語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의복과 장신구를 중심으로-, 복식35호, 1997.

3) 元井 能, 日本被服文化史, 東京, 光生館, 1981, p.21.

자리매김된다. 이 때의 袷은 보통 5매 혹은 7매 정도 겹쳐 입었는데, 시대가 지날수록 사치함이 증가하여 20매까지 겹쳐 입기도 하여 長保3년(1001)에는 이를 5매로 한정하는 법률이 정해지기도 했고<sup>4)</sup>, 袷 위에 착용하는 打衣는 그 착용의 본 목적은 옷의 실루엣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것 역시 수구 등에 나타나는 배색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 紅色을 사용하기도 하여 打衣를 일명 紅 혹은 濃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sup>5)</sup>. 따라서 唐衣裝을 착용하였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깃, 수구, 앞중심선에서 도련선에 이르기까지 백색의 單로부터 5색 이상(많은 것은 20색)의 袷의 색, 그리고 흉색의 表着, 그 위의 唐衣까지 연출되는 배색미로서, 이것은 복색미의 극치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平安 당시 일반화되었던 襲色目(카사네노이로메)은 이 배색미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었고, 따라서 平安시대는 색채에 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특히 그 후기인 藤原시대에 와서는 색채의 사용이 승이의 통제를 넘어서 시대라 할 수 있으며<sup>6)</sup>, 平安 당시 여성들은 의복에 있어서 색의 성대함을 극한 상황까지 표현할 수 있었으므로 이 시대를 가히 색의 시대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sup>7)</sup>.

한편 당시 의복에 나타난 색채문화의 특징을 보면, 첫째 襲色目の 유행이다. 襲色目は 일반적으로

두가지의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表裏의 색 배합이고, 다른 하나는 重袷<sup>8)</sup>의 색 배합이다. 市川節子は 이것을 表裏의 색 배합을 특별히 合せ目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했으나<sup>9)</sup> 통상 혼용되기도 하며 당시의 제작법으로 보아 안감을 크게 만들어 襟, 袖, 裾 등에서 안감의 색이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만들었으므로 홑 겹의 차이일 뿐 배색미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둘째 官服色에 있어서 색의 변용이다. 飛鳥시대 처음으로 紫, 緋, 綠의 순으로 位階色이 정해지진 이후<sup>10)</sup>, 奈良과 平安시대가 되면서 각각의 색이 상하에 따라 深・淺으로 세분화되고 상위의 색을 추종하기 시작하여 紫色이 점점 짙어지면서 黒紫가 되고 나아가서는 黒・灰色으로 바뀌어진다. 이것은 源氏物語가 저술된 1100년 무렵부터 급격히 黒・灰色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게 되는데, 源氏物語가 불교의 정토사상 위에서 인간 내면의 갈등을 깊이 있게 묘사한 것이므로<sup>11)</sup>, 승려의 색인 회색계가 각광을 받으면서 이것이 상류층의 官服에까지 도입되는 과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sup>12)</sup>. 이렇듯 자색에서 흑·회색으로의 변용에 대하여 紫田美惠는 紫色이란 그리움이 가득하고 마음이 동요되기 쉬운 정취깊은 색인데, 平安 말기 자색에서 흑색으로 바뀌게 되는 동기는 일반적인 美의식의 지향성과 그것과 방향을 다르게 하는

4) 青木英夫, 服裝史, 東京, 酒井書店, 1987, p.16.

5) 中川 孝, 十二單衣 復元 -表着, 打衣, 五衣-, 實踐女子大學家政學部紀要 20, 1983, p.77.

6) 元井 能, 앞책, p.34.

7) 烏居本 幸代 女性服飾の一考察 - 下, 衣生活研究會, Vol10, No.5, 1983, P.61.

8) 唐衣裝의 착용시 속에 袷(우치키)를 同形異色으로 하여 여러겹 입는데, 보통 5枚를 입으므로 五衣라고도 하며 사치가 심하여 많이 입을 때는 20가지 가까이도 입었다. 이렇게 袷을 여러겹 겹쳐입는 것을 重袷(카사네우치키)라고 한다.

9) 市川節子, 福田 保, 文獻を資料とした色名の變遷, 大妻女子大學家政學部紀要, 25호, 1989, pp.60-61.

10) 日本書紀, 推古天皇條 참조.

11) 市川節子, 福田 保, 앞논문 p.64.

12) 鈴木敬三, 有識故實圖典- 服裝と故實-, 東京, 吉川弘文館, 1995, p.27.

13) 紫田美惠, 藤原期における位色の變容に關する一試論 -紫から黒への移行をめぐって-, 服飾美學, p.12.

公的美가 바탕이 되어, 가장 호감받던 자색과 그것과 대조되는 회색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진다고 하였다<sup>13)</sup>. 이후 喪服에 있어서도 上代에 흰색이었던 것이 黑色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등 이 시대를 즈음하여 색에 대한 美意識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이 시대 의복에 색채가 발달하게 된 사회적인 이유 몇가지를 들면, 첫째, 일본에서 직물에 화려한 문양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12세기 들어선 이후부터로 平安시대에는 아직 문양에 대한 인식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색에 대한 욕구가 강렬했고<sup>14)</sup>, 둘째, 894년 遣唐使가 폐지됨에 따라 唐으로부터 錦이 수입되지 않았으며 渡日하여 錦을 짜는 기술자도 줄어들게 되어 錦이 품귀현상을 빚게 되었고 따라서 염색이 개발되어 색의 코디네이트로서 美的 욕구를 충족시켰으며<sup>15)</sup>, 셋째, 당시의 유일한 고급직물인 二階織物<sup>16)</sup>의 사용에는 칠향가 필요하여 이것의 사용이 불허되었던 女房들은 자수나 그림으로서 대신하기도 했으며, 특히 製色目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되어 색이 다른 옷

을 겹쳐 입음으로서 그 멋을 향유하였던 것<sup>17)</sup>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Ⅲ. 자료의 발췌와 분석

『榮花物語』에서 발췌된 색채와 염색의 자료는 모두 60종이다. 먼저 이들의 정의를 규명해 본 결과 용도에 따라 製色目을 의미하는 것, 位階色을 의미하는 것, 僧·喪服用으로 사용되는 것 등 몇가지로 대분될 수 있었다. 이들을 분류하면 <표1>과 같고, 분류한 방법에 따라 설명하고자 한다.

#### 1. 製色目

製色目は 모두 39종이었으며, 이들을 정의하면 <표2>와 같다. 한편 製色目로 사용되는 색명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는 일반 색명으로서 사용되는 것도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정의는 備考란에 설명해 둔다.<sup>18)</sup> 정의되는 과정에서 특징적 요소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표1> 용도에 따른 색채와 염색 자료의 분류

區分	製色目	位階色	僧·喪服色	其他
色名	菊, 白菊, 蘇芳菊, 梅, 蓮, 桔梗, 唐撫子(石竹), 紅葉, 卯花, 紫苑色, 樺櫻, 杜若, 龍膽, 裏山吹, 黃檳, 櫻, 草의香, 櫻萌黃, 薄紅梅, 薄青, 紅梅, 菖蒲, 紅, 蘇芳, 萌黃, 撫子, 藤, 赤, 葡萄染, 薄色, 櫻, 柳, 山吹, 朽葉, 女郎花, 萩, 躑躅, 二藍, 青朽葉	緋, 淺綠, 黃檳*, 紫, 紺, 綠, 青	椽, 黑椽, 香染, 薄鈍, 紺瑠璃, 黑染, 白椽, 鈍色	薄椽, 束濃, 村濃, 紺青(紺上), 綠青(綠上), 八重山吹

黃檳\* : 製色目과 位階色으로 중복됨

14) 平安朝의 晴裝束에서 文樣이 의복의 주요 포인트로서 유행하는 것은 12세기 중엽부터이며, 平安 後期까지도 문양은 진귀했고 희소하였다. (鳥居本 幸代, 『紫式部日記』において晴裝束の一考察, 日本服飾學會誌4, 1985, P.71, P.68.)

15) 近藤富枝, 服裝から見た源氏物語, 東京, 文化出版局, 1983, P.15.

16) 상류계층에서 사용한 고급직물로서 바탕무늬(地文) 위에 別絲로서 上文을 짜낸 것이고, 唐衣나 表着 등에 많이 사용하였음.

17) 近藤富枝, 앞책, P.116.

18) 본 자료에서 일반적인 색명과 중복되어 정의를 밝혀 놓은 것은 蓮, 朽葉, 青朽葉, 二藍, 櫻色, 藤色, 山吹色, 紅梅, 葡萄染, 淡色(薄色), 蘇芳, 紅, 赤, 柳, 萌黃, 萩色, 躑躅色 등이 있다.

〈표2〉 襲色目の 종류와 정의

色名	襲色目		備考
	表	裏	
菊	白	紫	
		白	
		蘇芳	
		青	
白菊, 蘇芳菊	白	青	10월, 11월 주로 나들이 때 사용.
		蘇芳	
梅	白	蘇芳	11월부터 2월까지 착용함.
	濃紅	蘇芳	
蓬	연한 萌黃	진한 萌黃	靑과 黃의 중간색인 柳綠色을 말함. 萌黃은 일본어적 표현임
	白	青	
桔梗	二藍	青	8월에 사용하되 연한 색은 6월에도 사용함. 二藍은 쪽빛과 빛으로 염색한 것.
	縹	薄萌黃	
唐撫子	紅	紅	패랭이꽃(石竹, 瞿麥)의 異稱임. 여름용.
	紫	紅	
紅葉	紅	蘇芳	가을용.
		青	
卯花	白	青	4월용.
		萌黃	
紫苑色	薄色	青	가을용.
	紫	蘇芳	
	蘇芳	萌黃	
樺櫻	蘇芳	赤花	赤花는 紫色 기미가 있는 옅은 赤色이며 紅花로 염색함.
	紫	青	
	薄色	진한 二藍	
杜若	萌黃	紅梅	연자화, 제비꽃.
	二藍	萌黃	
龍膽	薄蘇芳	青	과남플, 가을용.
裊山吹	黃	萌黃	겨울에서 봄까지 착용. 朽葉란 색은 가랑잎을 의미하는 것이고 朽葉色 즉 적갈색, 고동색의 줄인 말.
	黃朽葉	青	
櫛	赤	黃	옻나무, 가을용.
	黃	薄萌黃	
樗	薄(紫)色	青	밀구슬나무(楮)의 古名. 여름용. 薄色이라고 할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연보라색을 의미함.
	紫	薄色	
草의香	白	青	밀감과의 다년초명, 한자로는 藝香의 古名. 平安시대 향료로 삼음. 草의 짙은 藝香을 말하나 이 책에서는 襲色目이다.
櫻萌黃	黃綠	紫	異說이 많다.
		縹	
		薄紅	
		二藍	
薄紅梅	연한 紅梅	연한 紅梅	
薄青	연한 青	白	
	黃青	青	
撫子	紅梅	青	패랭이 꽃. 가을철에 피는 7식물의 하나. 여름용.
		薄紫色	
	紅	紫	
菖蒲	淡蘇芳	青	창포, 여름에 中階로서 薄紫 사용.
	青	紅梅	
	萌蔥	紅梅	

女郎花	經-黃 縹-青	青	산과 들에 자생, 잎은 羽狀複葉이고 夏, 秋에 淡黃色的 小花가 폼. 가을 7식물의 하나. 7,8월.
	青	萌蔥	
朽葉	赤色 기미가 도는 茶色	黃	썩은 낙엽의 색, 赤色 기미가 도는 黃色. 가을용.
青朽葉	經-黃 縹-青	青	초여름용.
二藍	짙은 縹	縹	紅花(잇꽃)와 藍(쪽)의 두 종류의 염료로서 짜 낸 이차색으로 짙은 보라색. 織色の 경우 經에 紅, 緯에 藍 사용.
櫻色	白	深紫	벚꽃 같은 淡紅色을 말함. 봄용.
		赤	
		二藍	
藤色	淺紫	青	연한 紫色. 음력 3,4월경.
	紫	萌黃	
山吹色	朽葉	紅梅	죽도화나무(山吹)의 꽃과 같은 색, 黃金色. 음력 3-4월경.
	연한 朽葉	黃	
紅梅	紅梅	紫	짙은 복숭아색(古), 紫紅色(現). 織色에서 經·緯絲에 紫·紅으로 하는 경우 연소자가 사용함. 봄, 織色の 경우 經에 紫, 緯에 紅 사용함.
	紅	紫	
葡萄染	紫	赤	赤의 짙은색, 紫色 기미가 도는 赤色, 葡萄色. 葡萄葛(산포도의 古名)의 열매를 익힌 색과 비슷하므로 이 이름이 있음. 織色の 경우 經에 紅, 緯에 薄紫 사용함.
	蘇芳	縹	
淡色(薄色)	赤色기미가 도는 縹色	薄紫 또는 白	薄紫色 또는 薄紅色을 말함. 織色の 경우 經에 紫, 緯에 白 사용함.
蘇芳	薄茶色	濃赤色	인도, 동남아시아에 생육하는 豆科의 喬木. 뿌리가 염료로 사용됨. 黑色 기미가 도는 赤色이 나옴.
	薄蘇芳	濃蘇芳	
紅	紅	青	紅花의汁으로 염색한 선명한 赤色. 가을용.
赤	蘇芳	縹	붉은 색.
柳	白	青	白色 기미가 도는 靑色. 봄용.
萌黃	萌黃	萌黃	黃과 靑의 중간색. 연한 綠色.
	薄靑	縹	
秋色	蘇芳	青	싸리꽃 색, 明紫色. 가을용.
躑躅色	蘇芳	萌黃	
	白	紅	

(1) 纒縹 시스템 : 平安시대 宮廷인들이 색채를 표현함에 있어서 최초로 영향을 받았던 것은 纒縹이라는 색채 시스템이다. 이것은 暎縹이라고도 쓰며 日月의 무리(暎)처럼 여러 색을 바림시키면서 점차 변해 가는 것으로, 中國이나 韓國에서 도래된 색채 사용법으로 일본적인 것은 아니며, 襲色目에도 이 暎縹이 사용된 화려한 색의 코디네이트가 존재했다<sup>19)</sup>. 따라서 纒縹이라는 색채 사용법은 직

물을 잘 때도 사용하였으나 襲色目の 중요한 표현법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실제로 纒縹 색채를 사용한 기술은 弘仁시대(794-894) 이후 당시의 직물 중에서 가장 화려한 錦으로 인정되었고, 法隆寺와 正倉院에 그 유품이 남아있다고 한다<sup>20)</sup>. 특히 작금 正倉院의 유물은 한국에서 도래된 것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있어<sup>21)</sup> 차후 이들 직물의 색채 표현법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적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찾

19) 近藤富枝, 앞책, P.116.

20) 河緒實英, 井上章, 日本服飾美術史, 東京, 家政教育史, 1982, P.39.

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薄樣法 : 襲色目の 표현 방법 중의 하나로서 한가지 색을 겉옷에서 속옷으로 갈수록 연하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白色이 되게 하는 配色方法이다. 예를 들어 紅이라고 하는 襲色目は 表가 紅, 裏가 白이지만<sup>22)</sup> '紅의 薄樣'라고 하면 襲色目로서 홍색이 겉에서 안으로 갈수록 점차 연하게 되는 것이고, '紫의 薄樣'이라고 하면 자색이 점차 연해져서 흰색이 되는 것을 말한다<sup>23)</sup>.

(3) 계절색의 표시 : 襲色目は 계절색을 갖고 있는 것이 많았다. 이 점에 대해 吉岡幸雄은 일본의 傳統色歲時記를 설명하면서 月別로 피는 대표적인 식물이나 꽃이름으로 계절별로 色名을 밝히고 있으며<sup>24)</sup>, 元井 能은 일본의 색명이 대부분 식물과 관련하고 있는 것은 색채를 보는 시각이 자연에 있고, 의복에 있어서 색은 식물의 이름이나 꽃의 이름을 매개로 하여 계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sup>25)</sup>. 계절색의 사용은 다소 복잡하여 小直衣, 狩衣, 小袷, 下襲, 相 등의 裝束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예복과 평복, 관위, 가풍, 연령, 길흉사 등에 따라 구별되기도 했다<sup>26)</sup>. 또한 같은 襲色目라 하더라도 계절에 따라 색의 규정을 다르게 하기도 했으며, 같은 색이라

도 계절에 맞추어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였고, 같은 이름이라도 의복의 종류에 따라 다른 배색을 할 경우도 있었다<sup>27)</sup>.

(4) 織色の 구별 : 織色이란 직물을 잘 때 위사와 경사의 색을 각각 달리하여 직조한 것으로서, 보는 방향에 따라 직물의 색이 다르게 보이며 은은한 이차색의 멋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襲色目の 表色으로서 織色을 달리 한 것은 매우 많았다. 고급 직물류에 속하며 이들을 요약해 보면 <표3>과 같다.

(5) 中階의 사용 : 襲色目 중 겉옷의 表裏의 색 배합을 특히 合色目라 하는데, 대부분은 표리 두겹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菡蒲色은 세겹으로 되어 있어 표리사이에 中階가 있다. 中階는 平安 무렵부터 일어난 것으로 公家の 裝束이나 几帳의 바탕천 등에 얇은 綾의 겹친 색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표리사이에 다른 색의 絹을 한겹 더 넣는 것으로, 江戸시대 이후가 되면 小袷의 袖口, 襟, 裾 등에 겉감과 안감의 박음질한 사이 색이 다른 좁고 긴 천을 끼워 넣는 형태로 바뀌어진다. 색을 다양하게 코디네이트시키는 장식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 中階, 中重이라고도 쓰고, 나까베 혹은 나까에라고도 발음한다<sup>28)</sup>.

<표3> 織色の 經·緯絲의 색상

色名	經絲	緯絲	備考	色名	經絲	緯絲	備考
樺櫻	紫	白	浮織物	紅梅	紫	紅	
青朽葉	青	黃		躑躅	白	二藍	
山吹	紅	黃		薄色	紫	白	
葡萄	紅	薄紫	二階織物	柳色	萌黃	白	
二藍	紅	藍		赤色	紫	赤(紅)	二階織物

21) 이춘계, 正倉院의 복식과 그 제작국, 서울, 일신사, 1995, p.32.  
 22) 문광희, 枕草子の 복식자료 연구, 앞논문, p.61.  
 23) 廣辭苑, うすよお、うすやお.  
 24) 吉岡幸雄, 色歴史手帖, 東京, PHP연구소, 1996,全體 참조.  
 25) 元井 能, 앞책, p.34.  
 26) 鈴木敬三, 앞책, p.3.  
 27) 市川節子, 앞책, pp.56-61.  
 28) 服飾辭典, 東京, 文化出版局, なかへ, おめり, ふき, 廣辭苑, 앞책, なかへ.

## 2. 位階色

의복의 색으로서 계급을 표시하는 位階色の 제도가 일본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은 推古11년(603) 聖德太子에 의한 관위 12계제의 제정이다. 이때 황태자의 예복은 黃丹衣였고 여자 최고의 예복은 紫衣였으며<sup>29)</sup>, 관인들은 복색은 當色이라 하여 靑, 赤, 黃, 白, 黑의 오방색과 그 위에 紫色을 두어 6색으로서 12품계를 표시하였는데<sup>30)</sup>, 이 관위 12계제는 일본의 학계에서도 중국제(隋)의 모방이 아니라 조선제 그 중에서도 특히 백제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학설이 모아지고 있다<sup>31)</sup>. 이후 품계의 변화와 함께 복색의 제정도 빈번하게 개정되는데, 자, 적계가 상위의 색, 녹, 청계가 하위의 색으로 인식되었고, 같은 자색 중에서도 深·淺을 구별하여 짙은 색을 상위의 색으로 하였다. 즉 이후의 변화과정을 보면, 647년에는 深紫, 淺紫, 眞緋, 紺, 綠의 순이었<sup>32)</sup>, 686년에는 深紫, 淺紫, 深綠, 淺綠, 深葡萄, 淺葡萄<sup>33)</sup>, 689년에는 黑紫, 赤紫, 緋, 深綠, 淺綠, 深縹, 淺縹로 되다가<sup>34)</sup>, 平安시대에는 이르러 大同元年(806)에는 7위의 淺綠은 6위와 같은 深綠, 初位の 淺縹는 8위와 같은 深縹로 되었고<sup>35)</sup>, 弘仁元年(810)에는 2위·3위의 淺紫가 中紫로, 諸王의 2위 이하 5위도 淺紫가 中紫로 되었다.

이상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位階色の 특징 중의

하나가 深淺의 구별과 함께 짙은 색에 대한 선호이고 이것은 자신의 신분을 보다 높은 계층으로 보이고자 하는 욕망과 함께 단계적으로 짙은 색으로 바뀌어지고 있음을 본다. 특히 자색의 경우 淺紫, 中紫, 深紫, 黑紫로 색이 세분화되는 것은 자신보다 낮은 계층의 복색을 자신과 차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이고, 이것은 마침내 흑색으로 치달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紫根染은 재료나 染法이 용이하지 않고 염색기술 또한 平安시대가 되면서 저하되어 복색은 간단하고 쉬운 黑色으로 바뀌면서 紫는 이름만 남고 3위 이상도 黑色으로 되고, 藤原시대에 들면 諸臣의 4위도 諸臣의 5위와 마찬가지로 黑色을 착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天曆(947-957) 무렵부터이며 이후 후세까지 계속된다<sup>36)</sup>. 따라서 『榮花物語』 당시의 관복색은 최상위의 색이 흑색인 가운데 자, 비, 록, 표의 순이었다.

그런데 『榮花物語』에는 紺色이 나온다. 이것은 靑에 紫를 섞은 것으로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청색이다. 특히 紺色은 藤原시대 말기로부터 鎌倉시대에는 武人の 색인 褐色<sup>37)</sup>로서 최상위의 색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天曆年間을 즈음하여 정해졌던 흑색과 동일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黃櫨는 천황의 朝服(東帶)에 사용된 색으로서, 거망옷나무(櫨)의 나무껍질과 蘇芳, 灰汁 등은

29) 關根眞隆, 奈良朝服飾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93, pp.59-63.

30) 日本書紀, 推古天皇, 11년, 16년 참조.

31) 増田美子, 古代服飾の研究, -繩文から奈良時代-, 東京, 源流社, 1995, p.106, 110.

32) 日本書紀, 卷第25, 新官位制.

33) 日本書紀, 卷第29, 秋7月.

34) 日本書紀, 卷第30, 官位와 服制.

35) 이때 7위 이하는 명록뿐이었고 6위의 袍는 綠衫이라고도 했는데 藤原 말기부터 진한 淺萌으로 바뀌고 縹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36) 鈴木敬三, 앞책, p.27.

37) 褐色은 두가지의 발음을 갖는다. 하나는 '카츠쿠'라 하여 검은 빛을 띤 茶色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카치이로'라 하여 짙은 紺色을 의미하는데, 紺色의 의미에 있어서는 '勝' 자의 카츠와 발음이 같다고 하여 승리의 색을 의미하였다.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東京, 衣生活研究會, 1984, p.87.)



〈표4〉 位階色の 정의

색상명	정 의
黃植染	천황의 朝服(束帶)色.
靑色	천황의 麤塵袍.
紺色	황에 紫가 섞인 色.
紫色	지치의 뿌리로서 염색한 赤紫色.
緋色	진하고 선명한 朱色.
綠色	綠色.
淺綠色	薄靑色, 薄靑色, 薄綠色 또는 薄萌黃色으로 하늘색을 말함.

로 염색한 赭黃色인데 시대에 따라 농담에 차이가 있어 색이 일정하지는 않았다<sup>38)</sup>. 黃植가 문헌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弘仁11년(820) 11월 2월조에 천황은 매월 1일의 受朝, 大小會合 등에 黃植染衣를 입는다<sup>39)</sup>라고 있으며, 이것은 이후 계속하여 천황의 조복색으로 사용되다가 대체로 藤原시대 말기 이후 두절된다<sup>40)</sup>. 한편 靑色은 經靑雜黃絲로 된 織色이고 山鳩 혹은 麤塵이라고도 하며 오랜기간 근무한 藏人도 이것을 사여 받아 착용할 수가 있었으나, 장인의 麤塵袍와 구별하기 위해 천황의 袍色을 靑色이라 하였다<sup>41)</sup>. 『榮花物語』에 나타난 位階色の 종류와 정의를 요약하면 <표4>과 같다.

### 3. 僧·喪服色

僧·喪服用 色名들을 정의하면 <표5>와 같이 요약될 수 있는데, 주로 검은색 계통이며 주염료는 도토리 껍질 푸경 그리고 매염제는 철을 사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丁子染은 승복의 가사에 사용되었으므로 薄赤에 黃을 띤 색이라고 하므로 이것은 적색 계열이다.

전술하였듯이 僧·喪服 계통의 색상들은 枕草子에서 보다는 源氏物語에서 급격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sup>42)</sup> 이것은 불교의 정토사상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伊藤愼吾는 上代에 흰색이었던 喪服이 이 시대에 와서 흑색으로 바뀌는 것 또한 黒染을 들이는 僧服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였다<sup>43)</sup>. 한편 불교가 일본 땅에 자리잡는 것은 奈良시대의 神佛習合思想에서 발단되었는데, 神은 본토에서의 佛菩薩이 일본땅에 정주하여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으므로 佛像과 함께 神像이 만들어졌고, 이 때의 神像의 복장이 平安시대 남자의 정장인 束帶의 祖型이 되었음<sup>44)</sup>을 생각할 때 平安시대 당시 불교의 영향은 매우 컸고 이것은 의복의 색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上位의 색이 흑·회색으로 바뀌는 것 또한 僧·喪服用의 흑·회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38) 鈴木敬三, 앞책, p.25.

39) 増田美子, 앞책, p.234.

40) 鈴木敬三, 앞책, p.9.

41) 増田美子, 앞책, p.26.

42) 문광희, 枕草子の 복식자료 연구, 앞논문, pp.60-61 참조.

문광희, 源氏物語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앞논문, pp.162-164 참조.

43) 伊藤愼吾, 風土上よりみたる源氏物語描寫時代の研究, 東京, 風間書房, 1968, p.656.

44) 源注余滴卷9에 “藤原宇萬伎云, 喪服은 上代에는 白色이었다. 中世에서 먹으로 염색하는 것은 黒染의 僧服에서 나왔다고 본다. (伊藤愼吾, 앞논문 p.656.)

〈표5〉 僧·喪服用 色名の 정의

색 명	정 의	용 도
椽	도토리외의 겹질의 푸른색을 삶은 즙으로서 염색한 色. 濃色灰.	喪服用.
黑椽	椽의 색을 진하게 한 것.	喪服用.
香染 (丁子染)	丁子は 열대 常綠喬木, 열매를 황색의 염료로 사용. 香染은 丁子를 삶은 즙으로 염색한 薄赤에 黃을 띤 色.	僧服 가사에 사용.
紺瑠璃	紺色을 띤 瑠璃色.	
墨染	暗色.	喪服, 僧服.
鈍色	도토리외의 진한 즙을 철매염으로 염색한 것으로 黑椽色을 연하게 한 것이며, 薄黑色, 진한 靑색임.	(女)僧服, 喪服.
薄鈍	淡鈍이라고도 쓰며, 열은 鈍色을 말함. 鈍色, 靑鈍, 薄鈍은 모두 같은 용도로 사용됨.	대부분 喪服, 僧服.
白椽	白色을 띤 椽色. 鈍色의 연한 것.(椽은 도토리외의 古稱임.) 도토리 열매를 쥘 즙으로 염색함.	4位 이상의 袍, 喪服에 사용함.

이다. 한편 白椽이 4위 이상의 袍에 사용되는 것도 역시 天曆 무렵부터이다.

#### 4. 기타

(1) 末濃, 村濃 : 염색방법 중의 하나로 末濃은 裾濃이라고도 쓰며 아래자락으로 갈수록 색상이 진해지는 것을 말하고, 村濃은 한가지의 색으로서 여기 저기에 연하고 진하게 염색한 것을 말한다.

(2) 八重山吹 : 의복의 착용방법 중의 하나로, 山吹 襲色目 때 아래의 襲色目に 黃色의 연한 띠를 여러장 겹쳐서 입고 있는 모양을 말한다.

(3) 紺靑(紺上), 綠靑(綠上) : 안료의 종류이며, 紺靑(紺上)은 鮮美한 藍色의 안료. 코발트색의 안료로서 금속과 같은 광택이 있는 것으로 金靑이라고도 쓰며, 綠靑(綠上)은 銅 器物의 표면에 생긴 녹(金銹)으로서 綠色의 안료이다.

#### IV. 맺는말

A.D. 1086년부터 약 20년 동안 쓰여진 일본의 역사소설 『榮花物語』에 나타난 60종의 색채와 염색

에 관한 자료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榮花物語』 속에 표현되어 있는 색채와 염색에 관한 자료는 당시 복식이 화려하게 발달되어 있었던 시대상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 시대 의복에 대한 미의식은 색채와 염색면에 크게 치우쳐 있었다.
- 襲色目가 매우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었고, 특징적인 요소들로는 纏網法이나 薄樣法 등을 이용한 표현방법의 발달, 襲色目に 계절색, 織色이 표시되는 것, 그리고 中階의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 位階色은 흑색이 최상위의 색으로서 인정되는 가운데 자, 비, 록, 표의 순이었고, 『榮花物語』에서는 紺色으로 표현되고 있다.
- 黃櫨는 820년경부터 藤原시대 말기까지 사용된 천황의 朝服(東帶) 색이고, 靑色도 천황의 袍色이다.
- 당시의 僧·喪服色은 흑색과 회색으로 이것은 불교의 정토사상에서 출발되어 사회의 位階色에까지 영향을 크게 미쳤다.
- 기타 염색 방법으로 末濃, 村濃이 있었고, 의복 착용의 방법으로 八重山吹가 있었으며, 안료의

종류로 紺青(紺上), 綠青(綠上)이 있었다.

7. 位階色, 纒絲間法, 束帶의 근원이 되는 불교사상의 도입 등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영향이 뚜렷이 보인다. 이외에도 한반도의 복식문화가 근원이 되는 것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차후 한일 복식간의 면밀한 비교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榮花物語, 東京, 岩波書店, 1955.
- 吉岡幸雄, 色歴史手帖, 東京, PHP연구소, 1996.
- 鈴木敬三, 有識故實圖典- 服裝と故實-, 東京, 吉川弘文館, 1995.
- 關根眞隆, 奈良朝服飾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93.
- 増田美子, 古代服飾の研究, -繩文から奈良時代-, 東京, 源流社, 1995.
- 黑板伸夫, 平安王朝の宮廷社會, 東京, 吉川弘文館, 1995.
- 近藤富枝, 服裝から見た源氏物語, 東京, 文化出版局, 1983.
- 河籬實英, 井上.章, 日本服飾美術史, 東京, 家政教育史, 1982.
- 元井 能, 日本被服文化史, 東京, 光生館, 1981.
-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東京, 衣生活研究會, 1984.
- 青木英夫, 服裝史, 東京, 酒井書店, 1987.
- 伊藤慎吾, 風土上よりみたる源氏物語描寫時代の研究, 東京, 風間書房, 1968.
- 榮花物語と裝飾經, 日本美術7, 1989, No. 278.
- 中山昌, 文學にみる衣生活 シリーズ, 榮花物語の服飾, 衣生活 107, 1976.
- 市川節子, 福田 保, 文獻を資料とした色名の變遷, 大妻女子大學家政學部紀要 25호, 1989.
- 紫田美惠, 藤原期における位色の變容に関する一試論-紫から黒への移行をめぐる-, 服飾美學.
- 烏居本 幸代, 女性服飾の一考察 - 下, 衣生活研究會, Vol 10, No.5, 1983.
- 烏居本 幸代, 『紫式部日記』において晴裝束の一考察, 日本服飾學會誌4, 1985.
- 中川 孝, 十二單衣 復元 -表着, 打衣, 五衣-, 實踐女子大學家政學部紀要20, 1983.
- 이춘계, 正倉院의 복식과 그 제작국, 서울, 일신사, 1995.
- 문광희, 枕草子の 복식자료 연구, 복식 28호, 1996.
- 문광희, 源氏物語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21권1호, 1997.
- 문광희, 榮花物語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의복과 장신구를 중심으로-, 복식35호, 1997.
- 田谷新 역, 日本書紀, 서울, 일지사, 1992.
- 新村 出 編, 廣辭苑, 東京, 岩波書店, 1980.
- 服飾辭典, 東京, 文化出版局, 1985.